

석사학위논문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조사연구

-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세 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좌 명 훈

2000년 8월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조사연구

-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세 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제출자 좌 명 훈

좌명훈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0년 8월 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任 李 世 昌 俊
李 世 昌 俊
안
인
인
인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조사연구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중심으로-

좌 명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세 형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도덕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현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유도수련자 269, 비수련자 269, 총 538 을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중·고등학생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함양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에 있어서는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 1) 성별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은 여자수련자가 남자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교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학교급별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은 고등학교 수련자가 중학교 수련자에 비해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비수련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계층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문제	2
4. 연구가설	2
5.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도덕성의 개념	4
2.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	6
3.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8
4. 스포츠의 도덕성	12
5. 선행연구의 고찰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도구	16
3. 연구절차	18
4. 자료처리	18
IV. 연구 결과	19
V. 논 의	23
VI. 결 론	25
참고문헌	26
부 록	39

표 목 차

〈표-1〉 Piaget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지적 발달단계간의 단계	7
〈표-2〉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	8
〈표-3〉 표집인원	16
〈표-4〉 DIT의 갈등상황별 해당단계 구분	17
〈표-5〉 설문지의 구성지표	18
〈표-6〉 유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19
〈표-7〉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20
〈표-8〉 종교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20
〈표-9〉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21
〈표-10〉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22
〈표-1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문명의 발달과 쇠도하는 정보지식을 주체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짐차 가중되는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지식편중의 문화 풍토 속에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의 현상이 두드러져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규범과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최영근, 1992)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은, 그 속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때에 도덕교육은 교육의 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덕성 상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하겠다(방은령, 1994)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으로 부가되는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전환시켜 주며,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내재조건이며 가치성향인 도덕성을 재정립하고 발달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조영호, 1993)

이러한 도덕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도의 경우 단순히 기술수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유도의 도덕적인 정신을 체득해서 실생활의 신조로 삼는 것이 유도의 목적이다. 유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도수련을 통하여 인간의 도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도 경기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거나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등 지나치게 외적인 과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스포츠맨십을 저버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도의 본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수련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도를 배워가는 도덕성 발달을 간과하게 된다(천길영, 1994)

유도의 근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유도는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발생되어 격기형식으로 하나의 무술로서 전승되어 오다가 1882년 일본의 Gigoro Kano(1860~1938)에 의하여 현대 스포츠로 체계화되었다(김의환, 1986).

무도 성격을 띤 유술(柔術)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체육(physical education)·호신(self-defense)·수신(moral training)의 3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고, 초기에서부터 유도는 단순히 기술 연마의 차원을 떠나서 체육(physical growth)·승부(challenge)·수신(moral training)의 3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을 둔 교육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었다(Shinichi, 1984)

이처럼 유도의 본래 목적은 수련과정을 통하여 도(道)를 체득해 나가는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유도수련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하고 도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의 도덕성 함양에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유도수련을 통한 올바른 도덕적 발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남·여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도수련과 도덕성의 관계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4.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연구 문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변인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1.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2.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3.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4.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내용상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 1)본 연구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 538명으로 제한하였다
- 2)본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 관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질문지만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도덕성의 개념

도덕성은 도덕생활의 근본이 되는 정신상태로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도덕 교육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중심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 도덕성이다. 도덕교육이란 결국 도덕성을 도야하여 도덕을 수용 내면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정인석, 1985)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도덕은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지키고 있는 원리와 규범을 일컫는 말이며, 그것의 특성을 도덕성이라고 한다. 한편, 도덕성은 한 사회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판단의 일반적 기준과 지향하는 도덕적 이상을 통칭하는 말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과 그것에 따른 행위의 성향과 이들에 의해 특징짓는 인격을 통칭한다(이돈희, 1986)

또한, 도덕성이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종류의 요구 또는 규칙이나 규제라는 것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와 분리되어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도덕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道」는 인간이 밟아야 할 도리요, 로고스(logos)로써 형성된 자기화 된 도덕적 능력이다. 서구의 도덕, 곧 morality 또는 morals라는 말은 습속 또는 풍채(빛이 나고 남보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걸모양)를 뜻하는 라틴어의 복수형 mores에서 유래한다

김형식(1992)은 道란 인간이 걸어야 할 정신적 도리이며, 德이란 道를 지키고 따랐을 때 얻어진 정신 및 인격적 결과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철학자인 Frankena(1971)는 도덕성을 사람사이에서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익의 배분되는 협동적 과정에 소용되는 기준 또는 원리라고 보았다.

Norman. W. T(1975)는 도덕성이란 인간존재의 법칙에 관한 지식체계로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규범적인 행동 및 준 행동양식을 나타낼 수 있는 내적 규제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영춘(1983)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와 같은 전 생활영역에서 인간행동과 인간관계의 존재형식에 관한 규범, 즉 평범한 인간인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집단 내에서 용인된 바람직한 행동규범에 부합되고 행동하고 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iaget(1965)은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분류하고 타율적 도덕성은 권위 의존적이며 객관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며 도덕적 현실주의적 판단형태를,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은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의 의도를 중시하며 도덕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출생 후부터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문화나 활동양식을 몸에 익히게 되며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인간사회의 여러 집단을 거

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실천해 나아간다 이러한 인간사회는 기계문명이나 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발달하고 특히 인간의 지능 및 정서적 성장에 힘입어 인간다운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도덕이나 윤리는 초기에는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르는 단순한 형태에서 사회의 규모가 키지고 내용이 다양하고 발전하였다 인간사회에서는 단지 전통적인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였지만 사회가 세분화되고 인간이 점차 자각적으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비판하고 합리화하여 '책임의식' '의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특징을 Dewcy(1908)와 Tufts는 고대인간의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집단도덕성(group morality)으로서 종족, 가족, 친족그룹은 고대인들의 생활에서 통합적이고 지배적인 세력이었는데 다수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그룹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안정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집단에 굴복시켰으며, 친족이나 가족 그룹은 정치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산업적, 경제적 단위였지만 어쨌든 도덕의 씨를 뿌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둘째, 개인과 그룹의 갈등 관계에서 개인의 도덕성은 그룹의 도덕성과 충돌하게 되어 진보와 변화, 또는 관습과 습관의 재형성을 요구하는 변화를 생산하게 되었다. John Dewey(1908)는 그의 저서 「Ethics」에서 “인간의 도덕감각은 더 많은 법과 습관, 그리고 규칙들이 더 큰 사회적 단위로 커지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서술함으로써 도덕발달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서는 자아기에는 무자각적으로 관습에 따르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의식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도덕발달 이론(moral development theory)을 설명하고 도덕성(morality)을 정의하는 많은 이론들이 속출하였다

Kant는 인간생활의 모든 관심이 ①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나 ②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③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으나 ④ 인간이란 무엇이나는 네 가지 문제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문제 중에서 실천적 관심에 답하는 것이 도덕인 것이다 두 번째의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하는 물음으로 대처하면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문제 즉, 남을 어떻게 대해 주느냐 하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이 물음에 관해서는 Kant는 “너 자신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성(humanity)을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다. 도덕성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Kant가 말한 인간성 즉,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는 질문으로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사려되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도덕성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해와 주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결정에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할 때,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성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인간존중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Piaget의 도덕성 발달 이론

Piaget(1932)은 모든 도덕은 규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을 내면화하여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 즉, 합리적 판단능력이 도덕성의 본질이라 하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발달은 행위의 주체자들로서의 개인이 그들·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회적 환경내의 모든 규칙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Piaget는 인지구조의 질적 차이에 의해서 발달의 계급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인지발달의 계급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감각 운동기

이 단계는 출생 후 2세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 단계에서는 반사 행동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감각·운동적 기능을 발달시킨다. 출생직후 1개월 정도는 단순한 선천적인 반사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나 반사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감각 운동적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첫돌쯤 되면 반사활동들이 보다 순응적이고 의도적으로 통제되고 조절되며 1세 반경에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다가 이 단계가 끝날 무렵에는 지연된 모방(deferd imitation)이나 모델이 없는 모방도 가능해지며 자신과 대상을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대상연속성개념(Concept of object permanence)이 획득된다.

2) 전조작기

이 단계는 2세에서 만 5세에 걸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사물을 판단할 그것의 외관 즉, 눈에 보이는 지각적 속성에 의해서만 판단할 뿐, 그것의 내재적인 관계성, 규칙 또는 조작을 이해하지 못한다. Piaget는 이 단계의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을 보존개념(concept of conservation)의 실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밝혀 주고 있다.

전조작기 사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자아 중심적(egoconstrism)이다. 자아 중심적이란 타인의 관점이나 조망(perspective)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조망에 얽매어 있는 사고 양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마주 앉아 있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무늬배열이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에게 재미있는 TV어린이 프로그램이 왜 어른들에게는 재미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3) 구체적 조작기

이 단계는 6세에서 11세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양, 무게, 부피 등의 보호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자아 중심성을 탈피하여 타인의 조망이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탈 중심화 능력(decentering ability)이 획득되어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던 일면적 사고에서 다면적 사고로 이행해 간다. 그리고 다소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지만 이는 구체적인 대상에만 국한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추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사고를 전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고의 특징은 현실 세계에 의한 구속성을 탈피하지 못하는데 있다 비록 이 단계의 아동들이 현실성을 떠나 가능성에 입각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세계에서 출발한 사고가 가능성의 세계(world of possibility)로 약간 연장된 데에 지나지 않는다

4) 형식적 조작기

11~12세 이후의 청년기가 이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전단계에서 하던 경험적이고 귀속적인 추리가 가설적이고 선택적인 추리로 바뀐다 추리적 사고에 있어서, 후자의 형태는 사고의 출발점이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명제내 사고(intrapositional thinking)도 가능케 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단지 하나의 명제가 지칭하는 경험적 현실간의 사실적 관계에만 주목하는데 비해,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그와 병행해서 또는 그 대신에 하나의 명제와 다른 명제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또,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자는 어떤 사상이나 명제에 포함된 일선의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전 단계보다 훨씬 우수하다 즉 일군의 요소들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조합과 순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더 잘 고안해 낼 수 있게 된다.

〈표-1〉 Piaget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지적 발달간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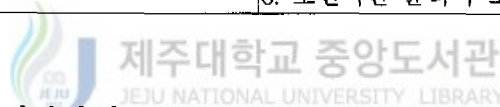
도덕성 발달단계	지적 발달단계
1단계 자기 중심적 단계	감각 운동기(0~2세)
2단계 : 권위주의적 단계	전 조작기(2~6,7세)
3단계 · 상호협동의 단계	구체적 조작기(6,7~11,12세)
4단계 이타적 · 공적 단계	형식적 조작기(11,12~15,16세)

3.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Kohlberg(1962)는 Piaget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piaget이 도덕에 관해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양분한 것은 도덕성 발달을 지나치게 단순히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그는 연구의 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도덕성의 발달단계를 한층 더 체계화하였다. 즉, Kohlberg는 1955년 종단적(longitudinal)연구와 범문화적(crosscultural)연구를 통해 piaget의 도덕성에 관한 수준과 단계를 재 정의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그는 도덕 판단의 발달을 20년 간의 종·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3수준, 6단계로 나누어 <표-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2>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

도덕판단수준	사회적 조망	도덕판단단계
I. 인습이전	구체적 개인적 조망	1 처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2. 도구적 상대주의자에 의한 도덕성
II. 인습적	사회 구성원적 조망	3 사람들 상호간의 고유 관계지향 도덕성
		4. 사회유지의 도덕성
III. 원리적	사회 선행적 조망	5. 사회계약의 존중성
		6. 보편적인 윤리적 도덕성



1) Kohlberg의 도덕판단단계

(1) 인습이전 수준(Pre-Conventional level)

이 수준에서 청년기 이전의 아동의 포함되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발달이 고정된 일부 성인들도 포함된다. 이 시기에서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 등에 대한 아동들의 도덕판단은 문화와 규칙과 표시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며, 또한 도덕적 규칙, 또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나 어떤 행동의 결과나, 또는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과 관련지어 해석된다.

이 단계는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

1단계 : 처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The punishment and obedience orientation)

이 단계에서는 행위의 물리적 및 신체적 결과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이 시기에 아동의 도덕성은 처벌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에 기초를 두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기보다 힘있는 자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복종은 기본적인 도덕 질서를 존경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의 도덕 판단은 인간 생명에 대한 도덕적 가치도 물질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고, 사회적 형태의 바탕을 두거나 가진 자의 물질적 특권에 바탕을 둔다. 본 단계에서는 규칙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규칙을 어길 경우, 이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지적해주면 이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전해주면 이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선의 보상에 대한 약속과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극시켜 다음 단계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 : 도구적 상대주의 도덕성(The Instrumental - Relativist orientation)

이 단계에서는 개인은 자기와 관련된 실용주의적 견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올바른 행동이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때로는 타인의 필요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선에 대한 주요 결정도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회에 대한 관점은 달라져서 예전처럼 개개인을 통제하는 권위 집단으로 보지 않고 자기와 같은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이룬 집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동에 관해 자기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는 행동으로 보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개개인 사이의 분배와 상호 교환의 공정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이익과 손해를 공정하게 교환하는 단순한 수단적 쾌락과 구체적인 상호성을 기술하고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서로 협동하고 있다. 즉, “네가 내 등을 긁어 주었으니까 나도 너의 등을 긁어줄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결코 충성이라든가, 감사, 정의의 문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

(2) 인습수준(Conventional level)

이 단계는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속하는 부분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인습이전의 구체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던 생각으로부터 사회적 요구에 집중되고 집단의 가치, 집단의 실제, 집단에 대한 인지적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도덕 가치는 개인 이익에 앞서는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른바 관습에 따르는 것을 옳다고 보게 된다. 또한, 행동도 자신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집단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음의 두 단계로 다시 세분되어 진다

3단계 : 공유 관계 지향의 도덕성(The Interpersonal Concordance Orientation)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싫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를 한다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며, 또는 그들에게 칭찬 받는 행동으로 “좋은 의도로 했다”는 말이 중요성을 띄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욕구나 도덕성을 구별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동하고 있다. 또한, 자기 희생이 선악의 결정 요인이라는 사고에 집중되며, 자기희생은 집단을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고, 인지와 감정적 측면에 있어서 집단에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 또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3단계에서의 인간 생명의 도덕적 가치는 가족의 동정과 애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생명의 소유자의 뜻에 근거된다. 또한, 정의 개념도 교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인 상상적 상호적인 황금률에 중심을 두게 됨으로써 3단계의 정의는 동등한 교환이라기보다는 선한 인간 상호관계의 개념과 통합되어 있다. 한편, 3단계에서 느끼는 이상적 역할 취득의 한계는 이 단계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며, 사회도 목표와 가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데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며, 사회도 목표와 가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데 있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을 위한 특정한 규칙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 질서 안에서 집단을 위한 위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규칙의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4단계 : 법과 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The "Law and Order" orientation)

4단계에서는 정당한 권위, 또는 결과론적인 죄 때문에 생겨날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4단계에서 도덕성은 법과 질서의 존중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법과 질서가 주가 된다. 즉, 의무를 이행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의 최고의 도덕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3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모든 공동체에 의해서 공유되고 받아들여진, 또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역할과 규칙의 사회적 질서인 제도를 가지고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4단계는 원리에 따라 사고하려는 인식 수준 이전의 시기 중에서는 법과 법적 권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보이는 단계인데 대다수 성인이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기적 수준

이 수준은 관습 이후의 수준이기는 하나 아직 원리적인 수준은 아니다. Kohlberg는 이 단계를 4½단계라고 불렀으며, 이 단계의 특징은 회의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상대주의로서 자울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단계이다. 4½단계에서의 어떠한 선택은 인격적이며,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감정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심은 '의무' 및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같은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과도기적 수준에서 사회적 관점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밖에 서서 그 자신을 일반화된 헌신이나 사회와의 계약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개인의 관점이다 4단계에서는 이상적인 법 지향성이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법을 단순히 지켜야 하는 사항과 지켜서는 안될 사항들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지배원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용되어온 전통과 사회 전체 기준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이성이 제공하는 원리가 윤리 이론의 기초가 됨으로써, 원리적 수준의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대립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맞서게 된다.

(3)후인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

이 단계에서는 사회가 옳다고 관습적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관습을 초월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즉 사회적 관점에 앞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자아 중심적 욕구나 이미 기존의 사회 질서에 부합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이며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갖게 된다. 여기서 보편적 정의의 원칙이란 기존 법률, 사회 관습, 자신의 사회적 또래 집단 이상으로 정당성을 말하며 이 수준은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진다.

5단계 : 사회 계약 존중의 도덕성(Social-Contract, Legalistic Orientation)

5단계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적 의미를 띠게 되며, 평등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존엄성을 보 존하려는 관심에서 도덕적 행위가 표출된다. 이 단계에서 옳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등 사회 전체가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합의를 본 계약상의 동의 및 상호 의무와 같은 일반적 원리로 정의된다

이 단계의 핵심은 법, 또는 준칙들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 접근에 공을 들이고, 법을 유지하는 관점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법을 만드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의 법이란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창조물로 볼 수 있다. 5단계 사람들이 어떤 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까지는 그 법에 대해 도전을 기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 법을 검토해 본 다음 법을 지킨다 5단계에서의 정의는 자유 혹은 시민의 권리, 기회균등, 계약 등으로 이 개념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스런 태도를 존중하는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자유는 시민법과 시민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5단계에서도 한계는 있다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5단계는 공리주의의 안정 상태에 있지 못하고 합당한 윤리성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덕적으로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규명하기 위한 확실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6단계 보편적 윤리적 원리 지향성(The Universal Ethical Principle Orientation)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어기게 하는 자책감에 대한 관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선한 것은 논리적 포괄성, 보편성, 일관성에 호소하는 스스로 선택한 원리 원칙에 준해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정의된다 6단계의 최고로 원리화된 도덕성은 인간의 생명, 평등,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둔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원리들이다

권리는 논리적 이해가능성, 범재성, 일관성에 호소하는 자신이 선택한 윤리 강령 또는 원리와 일치하는 양심의 결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나 강령은 추상적이고 불문율적이다 그러나 심계명처럼 자체적인 도덕규율이 아니라 핵심은 저의, 호혜, 인간권리의 평등인 산존경에 대한 경의에 있다 이러한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는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초기단계는 감소되고 그 후의 단계가 나타나는데 단계들 간의 상관은 낮으며 나중에 나타나는 단계들 간의 상관은 낮다고 한다 즉 나중에 나타나는 단계들은 초기 단계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치된다고 말한다

이상의 Kohlberg의 단계를 분석해 보면, 1, 2단계에서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적 결과가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3, 4단계에서는 그 사실적 결과의 범위가 대인관계나 사회체제로 확대될 뿐 여전히 구체적 결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5, 6단계에서는 그런 구체적 판단 근거에서 벗어나서 그 근거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고의 결과로 사람들은 구체적, 사실적 결과와는 무관한 보편적 도덕원리에 의하여 완벽한 지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와 관련지어 본다면, 어떤 사람의 도덕 판단 수준이 인습 이전에 있다면, 낮은 형식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다고 자신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조작기와 낮은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인습적, 전 인습적 도덕수준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Piaget와 Kohlberg의 도덕 체계는 근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Piaget는 도덕판단단계를 자기중심적 단계, 권위주의적 단계, 상호적 협동의 단계, 공적 단계를 4구분한데 비하여 Kohlberg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 개인의 권리 및 사회계약 존중단계, 보편적 윤리적 원리 지향단계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Piaget는 도덕적 성숙이 개인의 자발적 판단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반면에(약 12세 가량), Kohlberg는 도덕적 성숙이란 원리에 따르는 도덕 판단을 지칭하며, 이는 20세 전후의 소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도덕 판단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Piaget이 도덕판단을 요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양자 택일을 요하는 폐쇄형의 면접방법을 택한 반면에, Kohlberg는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하여 개방형의 문항 등을 활용하고 있다. 도덕 판단에 관한 Piaget의 측정방법은 이러한 반응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발달의 척도가 되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의 상한 연령을 12~13세로 잡아 분석하고 있으나, Kohlberg는 발달의 상한 연령을 20세 전후로 훨씬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Kohlberg는 각 발달 단계는 그 단계에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 새로운 단계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적 조작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 단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논리적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Kohlberg는 자신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통합과 분화(differentiation)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 통합이란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보다 낮은 단계로 흡수하여 점점 완전한 도덕적 원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분화는 단계가 점점 높아질수록 자기 일신상에 미치는 사실적 결과에서 점점 분화된 도덕적 원리를 향하여 나아감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인간이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덕성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과정을 인지발달과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기술, 설명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4. 스포츠와 도덕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이러한 신체의 활동을 초기 인간사회에서는 단순한 생존수단으로써, 즉 식량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가족이나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스포츠는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여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이제는 스포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스포츠는 인간사회에서의 도덕이나 윤리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된 신체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지적인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포츠에서도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인간의 좀 더 높은 정서적, 육체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떠맡아야 할 요구와 기대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에서는 과거의 단순한 신체만의 단련에서 벗어나 현재에 있어서는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적을 안고 있는데 그 중 스포츠를 통한 훌륭한 인격의 개발이나 현대의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산업사회의 물질문명에 반비례하여 타락해가고 있는 인간성 상실의 회복에 있다.

근대올림픽의 부활의 의의에 대해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청소년에게 스포츠의 본질적인 신체적, 도덕적 자질을 발전시키고 함양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스포츠나 체육을 통한 이러한 도덕 발달의 노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정의감이나 투철한 책임감 및 인내력

을 몸에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윤리적 발달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스포츠맨 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스포츠맨 쉽은 협의적으로는 '스포츠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광의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맨 쉽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 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흔히 '스포츠맨 쉽을 보여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싸워라' 하는 말을 종종 들음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맨 쉽이란, 곧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로써 과거에는 스포츠 경기 중 단순히 경기 규칙만을 잘 지키고 심판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좁은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일반사회에서의 도덕이나 윤리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1) 유도와 도덕성의 관계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것이다 이 예를 존중하고 예의 작법을 중시하는 전통은 옛날부터의 좋은 전통의 하나이다 사전에는 예의 설명을 '내 몸을 닦고 사람과 사교하여 세상에 살면서 신을 믿고 이에 맞추어 생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예법, 정에 근거하여 경을 주로 하여 지나친 것을 절제하며 보자람을 채우고, 가능한 중정에 합치도록 함이 그 목적으로 외형을 닦고 내심을 바르게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고 하였다.

유도의 기원을 규명한다면 멀리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의식주를 얻고 혹은 석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맨손, 맨주먹으로 싸워왔다. 이러한 수단들이 체계를 이루어 현대적 의미의 각종 격투기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유도가 이런 격투기로부터 기원이 출발되고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포츠로 자리잡은 유도는 유도 본위의 가치 즉,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의미의 스포츠 도덕적 차원에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어 제도적인 스포츠로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요건으로 사료된다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명예, 정직, 페어 플레이, 예의범절 등과 같은 운동정신을 강조하여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개인은 스포츠 장면에서 강조하는 운동정신을 부지부식간에 내면화함으로써 건전한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스포츠의 구조적 가치구조의 범주 속에서 유도는 성장했고 다른 스포츠와는 다른 내면적 속성에서부터 그 근본 원인을 달리 하면서 출발해 온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윤리, 도덕성의 발달을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화된 유도는 스포츠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선행연구의 고찰

1) 도덕성 발달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 풍조와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인성교육에 따른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각 분야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연구분야로 고조되고 있다

김대영(1997)은 도덕성 발달과 인성, 학업성적, 지능 및 인성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중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DIT를 이용한 결과 도덕성 발달수준은 학업성적 및 지능과의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Piaget 와 Kohlberg 가 주장하고 있는 인지능력과 도덕성 판단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다.

오순근(1994)은 스포츠 참가와 도덕성의 관계의 연구에서 운동선수와 일반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DIT를 이용한 도덕성 발달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운동선수보다 여자 운동선수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종교 및 사회계층,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총수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근하(1992)는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남·여 중학교 397명을 대상으로 DIT를 이용한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의 유무에 따른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조영호(1993)는 운동선수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 264명을 대상으로 운동경력, 성별, 전공운동, 종교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운동경력이 많다고 해서 도덕판단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학년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가 하다고 주장한 Piaget의 연구결과와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Kohlberg등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공운동에 있어서는 구기운동이 투기운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덕판단수준에 있어 5, 6단계의 사고를 확률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종교에 유무에 따른 도덕적 판단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허혜경(1992)은 DIT검사법에 의한 한국 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3.79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호(1993)는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가정환경 변인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도덕성 발달은 부모가 대졸, 고졸인 자녀가 중졸학력의 자녀보다 도덕성 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직업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없었고,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천길영(1994)은 유도수련을 통한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구에서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에 비하여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수련자의 연령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도수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도수련자의 교육수준간에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도덕성 발달단계의 기초가 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스포츠와 도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실증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유도수련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내 남, 여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538명을 <표-3> 과 같이 표집 하였다.

<표-3> 표집인원

구 분 대 상	남		여		계
	유도수련자	비수련자	유도수련자	비수련자	
중학교	65	65	65	69	264
고등학교	72	69	67	66	274
계	137	134	132	135	538

2. 연구도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임변장(1986), 구창모(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 중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계층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도덕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Rest(1979)의 도덕판단력 검사지(DIT)의 6가지 도덕적 갈등상황 중 3가지(“한얼”씨의 고민, 탈옥수 “꽃님”씨, 의사의 고민)인 문용린의 한국어 번역본인 생활문제지이다

DIT는 Rest가 Kohlberg의 주관식 개인 면담 방법의 도덕성 발달 검사방식을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변형 제작한 것으로,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도덕성 측정과 검사실시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DIT의 간편형(short form)에 해당하는 생활 문제지는 DIT 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탐색적 단계를 거친 것이다. DIT는 3개의 딜레마가 제시되고, 각각 12개의 질문이 나온다. 이 12개의 질문은 각각이 도덕성 발달단계(Rest의 구분에는 1단계가 없고 2, 3, 4, 5A, 5B, 6의 여섯 단계)중 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4개의 질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한 문항에는 4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에는 3점, 세 번째는 2점, 네 번째는 1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험자가 각 질문 문항에 대해 평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에 따라 그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12개의 질문문항 속에는 도덕판단의 2, 3, 4, 5A(사회적 계약체급의 도덕성), 5B(직관적 인간주의 계급의 도덕성), 6단계에 해당되는 설명과 퇴행경향(antiestablishment orientation)을 보여주는 'A' 문항과 무의미 문항(meaningless item)을 의미하는 'M' 문항에 해당되는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어 부적당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피험자의 검사는 통계처리시 제외하게 되어 있다.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수는 P(%)점수로서 피험자의 도덕 판단 중에서 5, 6단계(5A, 5B,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P(%) 점수가 높을수록 그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도 높은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DIT의 갈등상황별 단계구분은 <표-4> 같다.

<표-4> DIT의 갈등상황별 해당단계 구분

문항번호 갈등상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얼씨의 고민	4	3	2	M	3	4	M	6	A	5A	3	5A
달옥수 꽃님씨	3	4	A	4	6	M	3	4	3	4	5A	5A
의사의 고민	3	4	A	2	5A	M	3	6	4	5B	4	5A

이와 같이 갈등상황별로 중요하다고 선택된 네 가지의 질문문항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2, 3, 4, 5A, 5B, 6단계와 A, M)점수를 합산한다. 이 점수를 단계별 원점수라고 한다. 5A, 5B, 6단계의 원점수를 합하여 구한 P점수에 세 가지의 갈등상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0.3을 나누어서 P(%)점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P(%)점수는 피험자의 도덕적 사고 중에서 5A, 5B, 6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DIT에 대한 일관성 검목의 기준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M'점수가 4점이상 일 때 ② 한가지 갈등상황에서 9이상의 일관성 결여점수가 나타날 때 ③ 두 가지 갈등상황에서 10개 이상의 동일한 평정이 나타날 때 그 응답자는 무의미한 자료로 처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표집대상 인원 579명중 41명을 무의미한 응답자로 제외한 538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5〉 설문지의 구성지표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인구학적 변인	성별, 종교, 학교급별	3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계층, 부모의 학력	2
도덕성	“한얼”씨의 고민, 탈옥수 “꽃님”씨, 의사의 고민	3
계		8

3. 연구 절차

설문지의 기재방식은 연구자 및 협조자가 표집대상 학교 및 체육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자기평가 기록방법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 1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도덕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유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가설 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을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6> 과 같다.

<표-6>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대 상	사례수(n)	P(%값)	T 값	유의수준
유도수련자	269	33.26	4.964	.000***
비수련자	269	27.61		

<표-6> 에 의하면, 유도 수련자와 일반학생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유도수련자가 33.26, 일반학생이 27.61로 유의수준에서 유도수련자가 5.65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수련자에 비해 유도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가설 II.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P(%값)을 독립변수로,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종교의 유무·학교급별·사회계층·부모의 교육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1을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7> 과 같다.

<표-7>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성 별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남	137	28.08	45.927	.000***
	여	132	38.64		
비수련자	남	134	24.36	5.770	.017*
	여	135	27.77		

<표-7> 에 의하면, 남·여 수련자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남자 수련자가 28.08, 여자 수련자가 38.64로 유의수준에서 여자 수련자가 10.56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수련자에 비해 여자 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여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점수인 P(%)값은 남자가 24.36, 여자가 27.77로 유의수준에서 여자가 3.41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비수련자에 비해 여자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련자와 비수련자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수련자와 비수련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 유무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H-2를 P<0.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8> 과 같다.

<표-8>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종 교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종교있음	209	33.48	2.33	.630
	종교없음	60	32.50		
비수련자	종교있음	175	26.65	1.219	.271
	종교없음	94	24.99		

<표-8> 에 의하면, 수련자의 경우 F값이 2.33 유의도가 .630이고 비수련자의 경우 F값이 1.219 유의도가 .271이므로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H-2는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즉,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급별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3을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9> 와 같다

<표-9>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학교급별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중학교	130	30.59	9.713	.002**
	고등학교	139	35.76		
비수련자	중학교	134	24.90	2.641	.105
	고등학교	135	27.23		

<표-9> 에 의하면, 수련자의 도덕성 점수인 P(%)값은 중학교 수련자가 30.59, 고등학교 수련자가 35.76으로 유의수준에서 고등학교 수련자가 5.17 포인트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수련자에 비해 고등학교 수련자가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수련자의 경우 중학교 비수련자가 24.90, 고등학교 비수련자가 27.2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련자의 경우와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계층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4를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10> 과 같다.

<표-10> 사회계층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사회계층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상	33	34.89	.437	.646
	중	226	32.92		
	하	10	35.67		
비수련자	상	31	24.18	1.984	.140
	중	214	25.87		
	하	24	30.28		

<표-10> 에 의하면, 수련자의 경우 F값이 .437 유의도가 .646이고, 비수련자의 경우 F값이 1.984 유의도가 .140이므로 사회계층에 따라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하는 연구가설 II-4 는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즉,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수련자에 비해 비수련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II-5를 P<.05의 유의수준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11> 과 같다.

<표-1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

구 분	교육수준	사례수(n)	P(%)값	F 값	F 유의도
수련자	중졸	52	31.09	4.784	.009**
	고졸	155	33.51		
	대졸	62	38.54		
비수련자	중졸	55	22.40	6.362	.002**
	고졸	124	25.40		
	대졸	90	29.23		

<표-11> 에 의하면, 수련자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성 점수인 P(%)값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38.54, 고졸인 경우 33.51, 중졸이하인 경우 31.09로 나타나 수련자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련자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수련자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성 발달 수준은 수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의 차이와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성별, 종교, 학교급별의 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사회계층, 부모의 학력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Rest의 DIT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I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차이는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순근(1994), 천길영(1994), Hall(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오순근(1994)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천길영(1994)은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수준을 연구한 결과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Hall(1981)은 Kohlberg의 이론을 스포츠 참가자에게 적용시켜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였는데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어진 이상과 같은 사실은 유도수련과 도덕성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즉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고등학생이 유도를 수련함으로써 기본적인 유도의 정신자세 및 도덕성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유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II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성별, 학교급별,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종교, 사회계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의하면 여자수련자가 남자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근하(1992), 오순근(1994), 허혜경(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교급별에서는 고등학생 수련자가 중학생 수련자에 비해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에서 말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성 성숙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부합하고 있어 Piaget(196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Piaget는 아동들의 놀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도덕성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숙한 도덕 판단이 더 빈번히 나타난다

고 하였다. 천길영(199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유도수련자일수록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종교, 사회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적은 변인이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이미 설정한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이해되는 사실은 유도수련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도덕적 연구가 갖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인의 설정에서 기존의 성별 및 학교급별에 국한된 연구에 부가하여 종교, 사회계층, 부모의 교육수준을 설정하여 도덕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해 주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주요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상을 중·고등학생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 대학생 및 성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며 분류기준 및 정확한 척도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Rest의 DIT를 이용하여 도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도덕성이라는 큰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건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변인설정에도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변인 및 문화적 배경변인을 설정하여 보다 훌륭한 연구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도덕성 발달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부하리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큰 부분이다. 특히 운동종목이 도덕성 발달 연구에 여러 가지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개념 자체가 크고 복잡할 뿐 더러 실제연구에서 오는 어려움 또는 건실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유도의 특성은 도덕 발달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중목임을 입증하는 바이다. 이는 유도 본래의 특성에서도 그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에 도덕성판단수준과 발달에 관련 있는 수련자의 성별, 학교급별, 종교, 사회계층, 부모의 교육수준 변인을 선정하여 각 변인들에 의한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현재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유도수련자 269명, 비수련자 268명, 총 538명을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로서 구창모(1985), 임변장(1983)의 연구에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변인을 발췌하였고, 도덕성에 관한 질문지는 Rest(1979)의 DI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였다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차이에 있어서 유도수련자가 비수련자보다 도덕성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도덕성

- 1) 남·여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있어서 여자 수련자가 남자 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여자가 남자 비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교의 유무에 따른 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학교급별에 따른 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고등학교 수련자가 중학교 수련자보다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비수련자가 중학교 비수련자 보다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련자와 비수련자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5)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도수련자와 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도수련자의 도덕성 발달수준은 높게 나타났고, 비수련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 강재윤(1988), “콜버그의 도덕성발달과 가치교육에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구창모(1991),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민님(1988), 「도덕발달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대영(1987), “도덕성 발달과 학업성취도, 지능 및 인성과의 상관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봉소, 김민남 역(1985), Kohlberg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의환(1995), “유도 메치기 기술의 생체 역학적 분석을 통한 유도인형의 유용성 평가,”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문미희(1991), “도덕 판단력검사(DIT)의 분항 적절성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용린(1986), 「생활문제 설문지」 (한국판 DIT 설문지), 서울.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 박찬희(1991), “스포츠의 도덕성 회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변호광(1988), “체육활동을 통한 도덕성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방은령(1994),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자기보고의 내용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스포츠과학연구소(1983), 「유도의 코우칭」, 서울 : 대한체육회
- 오순근(1994), “스포츠 참가와 도덕성발달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만형(1997),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을 통한 도덕성 발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근하(1992),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돈희(1986), 「도덕교육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영춘(1983), 「도덕과 교육」, 서울 : 교학연구사
- 이학래(1989), 「한국유도발달사」, 서울 : 보경문화사
- 이재호(1993),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가정환경 변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번장(1986), “스포츠사회화와 자기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영호(1993), “운동선수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정인식(198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재동문화사
- 천길영(1994), “유도수련을 통한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영근(1992), “유도수련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체육과학대학교 무도연구소지, 제4집 제1호
- 허혜경(1992), “DIT 검사법에 의한 한국 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Dewey, J.(1908).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Edwards, C. P.(1981).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Moral Jugement and Reasoning in R. H. Mumroe & B. B
- Faulkner, RR (1976). Violence. Camaraderie and occupational character in hocke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pórt and social deviance, SUNY at Brockport.
- Frankena, W.K.(1971). Toward a Moral Philosophy of Education in J. P. Strain(ed), Modern Philosophies, N. Y : Random House, pp. 316-331
- Hall, E.(1981). Moral development levels of atheletics in sport specific and general Social situtious. Unpublished.
- Harris, JC (1982). Ethical behavior and victory in sports, Value system at play. J.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dance.
- Kohlberg, L.(1962)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on Theory and reserch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 (1969)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Handbool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1967). Stage and S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ed. Goslin D. New York Rand Macnally
- Norman, W.T.(1975)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 Rep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momination.
- Oimatsu, Shininchi(1984). The way of Seiryokuzenyo, Jita Kyoei and Instruction, Bulletin of the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ies on Judo Kodokan Vol. 6.
- Piaget, J(1962). The Moral Jugement of the child New York: N. Y
- Rest, J.R(1973) Patterns of preference and comprehension in moral ju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41.
- Rest, J.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eapolis : Univ of Minesota Press

<Abstract>

A study on Cultivating Moral Characte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wa, Myoung — Hoon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ei-H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shall examine if there a difference of morality betwe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and among different levels of sex, religion, age, social, education

The population was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eju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37 males and 132 females among and middle and high school judo experts and 134 males and 135 femal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non-judo experts. Self reporting method quoted from <The Defining Issue Test DIT> of Rest, used to test 538 persons of all subject

There kinds of examination were used is t-test to check a difference of moral sense betwe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The other is one-way ANOVA to check a difference among different levels of sex, religion, education, social, education in parents

The findings of study were the followings

- 1 judo experts have higher point in P(%)point, the growth level of morality than non-judo experts
- 2 Women judo experts revealed the higher morality development than men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same thing, but judo experts revealed the morality development
- 3 In both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was not level of religion morality development
4. high school judo experts revealed higher morality development compared to middle school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same thing, but judo experts revealed the morality development.
- 5 In both judo experts and non-judo experts was not level of social morality development
- 6 Different education level leads in judo experts of parents different points of moral growth in morality grades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중·고등학생의 도덕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최명훈

※ 각 물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난에 V표 또는 O표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물음에 대한 응답이 보기에 자신의 생각과 맞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란에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문 1. 성별 ① 남() ② 여()

문 2. 학교급별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문 3.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⑤ 기타()

문 4. 우리나라의 사회계층은 아래의 여섯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아래 분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중		하	
상	하	상	하	상	하

문 5. 당신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항 목	안다녔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버지						
어머니						

(보기)

자전거 사기

철수는 집으로부터 10km 떨어진 학교에 걸어서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그는 자전거를 하나 사서 통학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며 자전거를 사라고 하셨으나 막상 가게에 가서 사려고 하니 의외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만약 철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고르시오.)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모르겠다. () ③ 자전거를 사지 않는다. ()

중요성					나의 생각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자전거 파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자전거가 튼튼하고 값이 싸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자전거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타이어의 모양을 보아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자전거의 크기가 알맞아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다른 사람이 좋게 보아야 한다.
<p>♣가장 중요한 것부터 4개를 골라 차례로 ()속에 번호를 쓰시오. (2) - (5) - (3) - (4)</p>					

☞이상으로 (보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시작하시오. 만일 뜻을 모르면 선생님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시간제한 없음)

“한얼”씨의 고민

어느 지방에 사는 한 부인이 특이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 약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가 최근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사는 엄청난 약값을 요구했다. 재료값의 10배가 넘는 2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가난한 그 여인의 남편 “한얼”씨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꾸어보려고 하였으나 그의 절반인 100만원 밖에 구하질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약사를 찾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약값에 절반 밖에 안되는데 나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값을 깎아 주든가 나머지를 뒤에 받게 해달라고 약방 주인에게 말했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다. 실망한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약을 훔칠 수 밖에 없었다.

※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만 고르시오)

- ① 훔친다 () ② 모르겠다 () ③ 훔치지 않겠다 ()

중요성					나의 생각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1. 공동사회를 위한 법은 지켜야 한다.
					2.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남편으로서 약을 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3.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해도 감옥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다.
					4. 이 남편이 레슬링 선수이고 친구들과 사이에 인기가 있는가?
					5. 남편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6.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가 발명한 약에 대한 정당한 약값을 요구할 권리가 그 약사에게 있다고 본다.
					7. 생명의 유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죽음의 종말 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8. 어떠한 가치관이 인간 상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겠는가?
					9. 한얼씨가 다음에 돈을 벌어 약값을 갚아 주면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런 경우에는 법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11. 약방 주인이 그렇게 욕심 많고 잔인하므로 당연히 약탈당할만 하다.
					12. 한얼씨가 약을 훔쳐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약도 훔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값진 행동이 아닐까?
<p>※ 가장 중요한 것부터 4개를 골라 차례로 () 속에 번호를 쓰시오. () - () - () - ()</p>					

탈옥수 “꽃님” 씨

“꽃님”이라는 한 여자가 1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아 1년동안 복역 중에 있다가 2년째 되던 어느날 감옥을 탈출하여 다른 마을로 숨어서 “하달순”이라는 가명으로 살게 되었다. 8년동안 그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큼 돈을 모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최고의 봉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많은 이익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향의 마을에 살던 “한씨”라는 삼이 이 마을에 왔다가 “꽃님” 씨가 탈옥수이며 경찰이 찾고 있는 자임을 알았다.

※ “한씨”는 꽃님씨를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

- ① 그렇다 () ② 모르겠다 () ③ 고발해서는 안된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요성					나의 생각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1. 그만한 세월이면 “꽃님”씨가 나쁜 사람이 아 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2. 탈옥하는 죄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범죄가 늘 어나지 않을까?
					3. 법에 의한 제약이나 형무소와 같은 제도가 아 예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
					4. “꽃님”씨는 진정으로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았 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5. “꽃님”씨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사 회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6. “꽃님”씨는 자수를 해야한다 모든 잘못은 자 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7. 꽃님씨의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치고 꽃님씨를 무정하게 감옥에 보내려 경찰 에 고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8. 만약 “꽃님”씨가 석방된다면 충실히 복역하고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공명하다고 볼 수 있는 가?
					9. “꽃님”씨가 “한씨”의 진정한 고향의 친절한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볼 때 고발하기란 참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10. 사정이야 어쨌든 일단 “꽃님”씨를 고발하는 것이 참된 시민의 의무라고 본다.
					11. 사람들의 뜻과 대중의 이익은 어떻게하면 가 장 잘 충족되이여지는가?
					12. 감옥에야보내는 것이 “꽃님”씨에게 어떤 이 을 주게 되는 것인지? 또는 그를 진정 보호 해 주는 것인지 생각해이여한다.
<p>※가장 중요한 것부터 4개를 골라 차례로 ()속에야번호를 쓰시오. () - () - () - ()</p>					

의사의 고민

어느 병원의 여자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너무나 병이 악화되어 의사의 말로는 6달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계속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의사에게 고통없이 죽게 하는 약을 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다. 그녀 자신도 어차피 죽을 목숨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약을 주어야 한다 () ② 모르겠다 () ③ 들어주면 안 된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요성					나의 생각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1.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먼저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생명은 그 환자의 것이다. 의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그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위험하게 자살을 도울 필요는 없다.
					4. 이런 경우 의사는 실수한 것처럼 가장해서 환자의 요청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5. 과연 국가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살게끔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6. 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 죽음의 가치를 우선할 수는 없다
					7. 이런 경우 그녀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동료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8. 한 인간이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9. 오직 신만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닐까?
					10. 의사가 그런일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양심의 가치를 따르는가가 중요하다
					11. 사회는 각 개인이 원할 때는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2. 사회가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면서도 살고자 원하는 다른 생명들을 여전히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p>※가장 중요한 것부터 4개를 골라 차례로 ()속에 번호를 쓰시오. () - () - () - ()</p>					